



쇼트트랙 골든 데이

오늘 밤 여자 500m·남자 1000m 금메달 사냥

지난 5일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예선전에 출전한 최민정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최민정은 7일 밤 여자 500m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연합뉴스



1분23초042의 올림픽 기록으로 예선 1위를 차지해 준준결승에 진출한 황대현. /연합뉴스

여자 500m 에이스 최민정 혼자 준준결승 관문부터 도전 남자 1000m 황대현·이준서·박장혁 예선 통과 메달 가능성

첫 메달을 기대했던 혼성 계주에서 충격의 예선 탈락에 그친 한국 쇼트트랙이 개인전 메달 사냥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7일 밤 8시 30분(한국시간)부터 중국 베이징의 캐피탈 실내경기장에서 열리는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와 남자 1,000m 준준결승에 출전한다. 여자 500m에는 최민정(성남시청)과 이유빈(연세대)이 5일 열린 예선에 출전했으나 이유빈이 탈락, 최민정 혼자 준준결승 관문부터 도전한다. 반면 남자 1,000m에서는 황대현(강원도청), 이준서(한국체대), 박장혁(스포츠토토)이 나란히 5일 예선을 통과, 이날 메달 획득 가능성을 부풀렸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첫 메달을 기대했던 5일 혼성 계주에서 예선 탈락, 다소 분위기가 침체했지만 이날 개인전 메달로 반등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여자 500m의 경우 그동안 올림픽에서 1998년 나가노 대회 전이경과 2014년 소치 대회 박승희의 동메달이 최고 성적일 정도로 한국이 강세를 보이지 못한 종목이지만 에이스 최민정의 출격에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바라볼 만하다. 남자 1,000m에는 황대현, 이준서, 박장혁 세 명이 예선을 가볍게 통과해 메달권 진입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바이애슬론과 루지에서는 귀화 선수들이 나란히 출전한다. 바이애슬론 여자 15km 개인전에 압바꾸모바 예 /연합뉴스

카테리나(석정마크썬)가 김선수(전북체육회)와 함께 출전하고, 루지 여자 싱글 1, 2차 레이스에는 프리체 아일린 크리스티나(경기주택도사공사)가 나선다. 러시아에서 귀화한 압바꾸모바는 2018년 평창에서 16위, 독일에서 귀화한 프리체는 평창에서 8위를 각각 기록한 선수들이다. 알파인 스키 여자 대회전에는 강영서(부산시체육회)와 김소희(하이원)가 중상위권 입상에 도전한다. 한편, 한국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2,000m 혼성계주 첫 경기인 준준결승 1조에서 결승선 3바퀴를 남기고 박장혁(스포츠토토)이 넘어지면서 2분48초308의 기록으로 레이스를 3위로 마쳤다. 혼성계주는 각 조 2위와 각 조 3위 팀 중 기록이 좋은 2개 팀이 준결승에 진출하는데, 한국은 기록상 상위 2위 안에 들지 못하면서 탈락했다. /연합뉴스

안현수 품은 중국, 쇼트트랙 혼성계주 금

김선태 감독까지 선임 전력 급상승

항상 한국에 밀렸던 중국 쇼트트랙은 지난 2019년 특별한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자국에서 열리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대비해 라이벌이자 세계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지도자를 대거 영입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을 이겼었던 김선태 감독을 선임한 뒤 각종 장비 및 트레이닝 코치를 한국 출신으로 채웠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까지 품었다. 안현수는 수석코치 격인 기술코치로 중국 대표팀에 합류했다. 중국은 한국 남자 대표팀의 간판이었던 임효준(중국명 린샤오원)에게도 접근했다. 징계로 인해 대표팀 자격이 정지됐던 임효준은 중국의 제안을 받고 고심 끝에 귀화했고, 한국 대표팀의 전력은 크게 무너졌다. 임효준은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현장에 따라 베이징올림픽 출전이 무산됐지만, 한국 대표팀에 타격을 주기는 충분했다. 한국이 무너진 사이, 김선태 감독과 안현수 코치는 중국 대표팀에 한국 DNA를 심었다. 안현수 코치는 직접 선수들과 함께 뛰며 노하우를 알려줬고, 김선태 감독은 한국의 전략과 기술을 전파하며 중국 대표팀의 전력을 극대화했다. 중국은 이 과정을 철저히 숨겼다. 중국 대표팀은 올림픽 개막이 다가오자 언론과 접촉을 완전히 막았다. 중국의 한 현지 기사는 "거의 한 달 동안 중국 대표팀 구성원과 인터뷰하지 못했다"며 "중국 대표팀이 어떻게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지 우리도 모른다"고 말했다. 중국은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공식 훈련에도 대거 불참했다. 중국의 전략은 성공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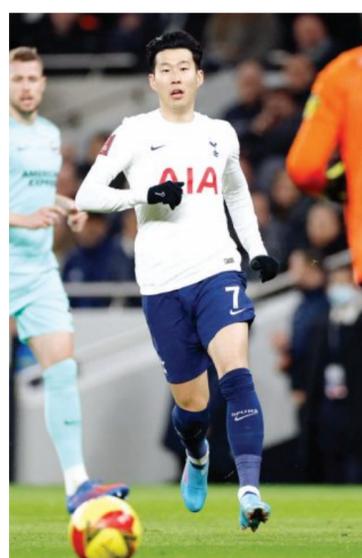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김선태 감독(오른쪽)과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 기술코치. /연합뉴스

중국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2,000m 혼성계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손흥민 복귀전 '폭풍 질주'... 토트넘 3-1 승리 기여

한 달 만에 그라운드를 밟은 손흥민(30·토트넘)이 '폭풍 질주'로 건재함을 뽐냈다. 손흥민은 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 2021-2022 FA컵 4라운드(32강)에 선발 출전해 69분을 뛰며 팀의 3-1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지난달 6일 웰시와 리그컵(카라바오컵) 4강 1차전(토트넘 0-2 패) 이후 다리 근육 통증을 호소한 손흥민은 이날 한 달 만에 복귀전을 치렀다. 손흥민은 비록 공격포인트를 추가하지는 못했으나, 전반 13분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공을 가로채 해리 케인이 선제 득점에 기여했다. 손흥민의 '하이라이트'는 후반 21분에 나왔다. 중원에서 공을 잡은 그는 상대 수비수 두 명 사이를 가로지르며 재빠르게 돌파했다. 상대의 방해에 슈팅까지 시도하지는 못했으나, 페널티 지역에서 흐른 공을 케인이 달려들어 쐐기 골로 마무리했다. 멀티골로 FA컵 16강 진출의 일등 공신이 된 케인은 경기 뒤 ITV4와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활약을 언급했다. 케인은 "(두 번째 골을 넣은 상황에서) 쏘니(손흥민)의 플레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엄청난 기회를 만들었다"고 감탄했다. 그는 "경기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 우리는 정말 잘했다. 후반전에 들어 기세를 살짝 차렸지만, 팀의 세 번째 득점 이후로 경기를 지배했다"고 평가했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도 손흥민의 복귀를 반겼다. 콘테 감독은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연합뉴스



손흥민

복귀는 좋은 소식이다.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선수"라며 "그는 결정력이 있고, 그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은 손흥민에게 출전 시간을 65~70분만 주려고 했다. 부상 후에 돌아왔고 이번 주에 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과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상태를 잘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수들이다.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